

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, 주거취약가구 집 고쳐줬다

✎ 오공환 기자 | ⌚ 승인 2025.09.24 06:19 | 📄 호수 1030

상줄동서 '농촌 집 고쳐주기' 사회공헌활동
장애인 가구 대상, 전기·설비·창호까지 개선



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(지사장 노경환)가 영주시 상줄동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.

이번 활동은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‘농촌 집 고쳐주기’의 일환으로,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

대상 가구는 노후된 시설과 비좁고 불편한 구조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 세대다. 지사 직원들은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생활 동선, 위생 상태, 냉난방 설비 등 전반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.

이번 작업은 단순 정비가 아닌 안전과 편의 중심의 맞춤형 주거 개선에 방점을 뒀다. 현장에서는 ▲전기공사 ▲설비공사(비가림막 설치 및 연탄보일러 교체) ▲창호공사 등이 함께 진행됐다. 실내 조명과 전기배선은 전면 정비됐고, 외부 날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비가림막도 새로 설치됐다. 오래된 보일러는 신형으로 교체돼 난방 환경이 개선됐다.

공사 직원들은 전문 업체와 함께 직접 공사에 참여하며 도배, 청소, 노후 가구 정리 등 세부 작업까지 꼼꼼히 마무리했다. 해당 가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.

노경환 지사장은 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책무”라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오공환 기자 okh7303@hanmail.net